

한국학의 특징과 한계, 발전을 위한 조건

글_ 최장집(고려대 정외과교수, 아세아문제연구소장)

본문은 지난 12월8일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이 개최한 '한국학의 정체성 대토론회'에서 최장집 교수가 발제한 내용입니다. 지면 사정상 2회에 나누어 실습니다.

“한국학”이라는 말은 그것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내용상의 커다란 차이를 갖는다. 필자는 한국학을 넓은 의미의 한국학과 좁은 의미의 한국학으로 나누어 봄으로써 이와 관련된 혼란을 피하고자 한다. 넓은 의미의 한국학은 한국을 연구의 주제 또는 대상으로 하는 학문 내지는 연구분야를 말한다. 좁은 의미의 한국학은 바깥에서 또는 밖으로부터 한국을 보고, 연구하는 것, 또는 한국적인 어떤 특성이 있다면 다른 나라, 다른 문화와의 비교의 맥락에서 문제를 볼 경우 이를 한국학이라 할 수 있다. 우리가 보통 영어로 'Korean studies'라고 할 때 그러한 말 뜻은 곧 좁은 의미의 한국학을 말한다. 필자는 한국학이라고 말할 때 이 좁은 의미의 한국학이 원래 의미라고 생각한다. 국내에서 우리학자들이 우리나라의 역사, 문화, 사회 등에 대해 말하고 연구하는 것에 대해 말한다면 그것은 넓은 의미의 한국학의 국내 부분을 의미한다. 이 넓은 의미의 한국학을 한국학이라고 말하는 것은 매우 어색하고,

일부러 만든 말이라고 생각한다. 미국학자들이 미국사회에 대해 말하거나, 프랑스학자들이 프랑스에 대해 말하는 것을 미국학, 프랑스학이라고 말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그러나 예컨대 영국정치학자들이 독일정치학에 대해 연구할 때, 그것은 독일학이라고 말할 수 있고 거기에는 그 연구를 위한 커뮤니티가 있다. 그리고 한국학이다, 일본학이다, 이슬람학이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보통 서구의 바깥지역, 특수한 문화, 역사를 갖는, 그러므로 보편적 학문으로부터 벗어난, 그 외부의 무언가 따로 연구해야 할 대상이라는, 즉 '국지적, 특수주의적, 주변적'이라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다음페이지〉▶

인다는 점이다. 사족이겠지만, 그 점에서도 전근대와 근대의 통합은 꼭 필요하다.

민족적 틀의 외피 해체... 새로운 한국학, 축소·확대의 이중적 면모
심포지엄에서는 한국학의 방법으로 한국학이 포괄 혹은 연대하는 다양한 분과, 분야에 대한 소통을 화두로 삼았다. 통합 인문학의 전통을 어떻게 되살릴 수 있는지, 사회과학 나아가 자연과학과의 대화가 가능한지, 동아시아 나아가 세계적 범주에서 한국사의 경험은 어떻게 기능할 것인지, 한국학 내부의 또 다른 주제인 다양한 집단의 발굴이 가능한 것인지 등을 염두에 두었던 것이다. 구체적인 주제가 통합 인문학으로서의 가능성, 사회과학과의 대화, 동아시아속에서의 한국학, 지방학의 가능성으로 짜여진 것은 그때문이었다. 논의의 개별성과에 대한 소개는 생략한다.

필자들의 논의를 보면 20세기까지의 한국학은 일견 해체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정확히 말하면 민족적 틀 속에 온존했던 한국학의 외피는 해체다. 반면 한국학이 기반한 한반도의 공동체 혹은 문화·언어적 고유성을 공유하는 한국인 집단에 대한 담론은 더 다양하고 보편적으로 양산된다. 한국사 속에서 세계사

의 보편성 찾기, 여성·종교·지방 등 다양한 주체의 발굴, 전통적 사유와의 변증법적 통합, 개인 자율성의 복원 등이 그것이다. 새로운 한국학은 일견 축소되는 듯하지만 일견 확대되는 이중의 길을 걷는다.

현재 한국학이 맞이한 호기는 아직 실용성에 머물러 있다. 진지한 성찰을 통한 다양한 가능성의 창출과 궁극적으로 보편적 가치론의 정립을 위한 여정은 이제 합의를 위한 의제를 내고 있는 단계다. 이런 작업을 통해 세계인과 진지하게 소통하고 진정한 한류轉流를 흘릴 수 있는 시기가 조만간 도래하길 기대해 본다. **▶**

● 이 글을 쓴 이경구는 서울대 국사학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규장각 선임연구원을 거쳐 현재 한림대학교 한림과학원 한국학연구소 연구교수로 있다. 논문으로 <17~18세기 장동(張東) 김문(金文) 연구>(서울대 박사논문, 2003), <1740년(영조 16) 이후 영조의 정치 운영>(《역사와현실》 53호, 2004), <법전을 통해 본 17~18세기 서울의 변화>(《서울학연구》 25호, 2005) 등이 있다.

우리가 미국학, 영국학, 프랑스학이라고 말할 때 그것이 어색하게 들리는 까닭은 그 때문이다. 민족주의적 한국학, 민족주의적 역사학을 한국학이라고 부르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한다. 한국역사를 공부, 연구할 때 민족주의의 퍼스펙티브에서 또는 이념이나 가치에서 역사를 본다고 해서 이를 한국학이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 역사학의 이념이나 방법론을 민족주의적이라고 특징짓는 것과 그것을 한국학의 특징이라고 말하는 것은 다른 문제이다. 한국의 역사를 민족주의적으로 보느냐 아니냐 하는 것은, 민족주의적으로 보아야 하느냐 아니냐 하는 문제와 많이 중첩된다. 이러한 문제를 한국학의 영역 내로 끌어들이면, 그것은 일종의 방법론 논쟁, 이념 논쟁이 되고, 한국학은 그러한 논쟁의 장이 될 것이다. 필자는 한국학을 좁은 의미의 것으로 이해하고, 한국학이 한국을 밖에서 연구하는, 또는 국내에서 교육, 연구하는 경우이라도 이를 한국학 분야라고 규정한다면 그것은 어디까지나 제도적인 측면, 연구 경향의 어떤 특징—만약 그런 것이 있다면—을 갖는 한국을 주제로 한 연구, 또는 학문영역으로 한정해서 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다. 한국학을 민족주의와 같은 어떤 이념함축적, 가치함축적인 것과 분리해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이다.

처음 한국학은 7,80년대 미국에서 한국을 연구하는 그룹, 그리고 더 발전하여 커뮤니티가 생겨나면서부터 붙여진 것이라고 본다. 처음에는 한국에 주둔한 미군에 근무한 경험을 갖거나 외교관으로 근무한 경험, 때로는 선교활동을 했던 신부나 목사, 그리고 보다 나중에는 60년대 이후 생겨난 평화봉사단의 활동경험이 아마 대부분일 것이고, 한국에 관심을 갖도록 한 어떤 개인적 경험 때문에 한국을 공부하게 된 경우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앞의 경우에 비해 수적으로 적다고 본다. 처음에는 주로 외국인들이 중심이 되었지만, 뒷 시기로 오면서 한국에서 유학한 유학생들이 미국 대학에서 학위를 받고 미국대학이나 한국대학에서 직장을 가지면서 이들 커뮤니티는 한국 내로 영역을 확대하면서 발전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처음에는 해외에서 나중에는 한국으로 확대발전하면서 한국학의 발전은, 연구자들의 수가 늘어나고 이들이 긴밀한 네트워크를 갖는 공동체로 발전하게 되고, 그에 따라 1세대, 2세대, 3세대라고 말할 수 있는, 이들이 공부하고 직장으로 나가는 시기가 뚜렷이 구분될 수 있는 어떤 시기구분이 가능한 현상을 만들어냈다. 그리고 이들 커뮤니티의 구성원들은 예를 들면 한국사가 대표적인 경우이지만, 국내과학자들과 학문의 성격이나 방법론, 학문을 계도하는 이념에 있어 일정한 차이를 드러냈다. 즉 국내파가 강한 민족주의적 역사의식과 가치를 갖는 경우가 많은 반면, 해외의 한국사 연구는 그렇지 않은, 보다 보편적인 방법이나 가치에 바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전자에 비해 후자는 보다 사회과학적 방법에 개방되어 있고, 비교사적·객관적 방법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해외에서의 한국학의 발전은 중국학이나 일본학과 비교되는데, 특히 세 가지— i) 사이즈, ii) 발전의 타이밍, iii) 민족주의—에서 차이가 뚜렷하다. 그 규모에 있어 한국학과는 너무나 차이가 크다 (나의 짐작으로는 100:1도 넘을 것 같다). 발전의 타이밍에 있어 이미 20세기 초반부터 시작되었고, 전후 5,60년대에 이미 많은 업적들이 쏟아져 나왔다. 민족주의적 사학이 그들 국가에서는 상대적으로 훨씬 영향력이 적다. 그러다보니 스칼라십의 질적 수준에 있어서도 커다란 차이를 갖는다. 한국학분야에 있어서 국내의 학자들을 통틀어 중국학이나 일본학 수준의 연구들과 비교될 수 있는 업적들은 매우 적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국학의 발전은 먼저 미국을 중심으로 한 해외에서 일어났는데, 그것은 미국의 기관들이 제공하는 연구비의 영향력이 크다. 내가 있는 아세아문제연구소의 경우를 보면, 57년 본 연구소가 설립된 이후 기본적인 연구비와 운영비 조달은 미국으로부터, 특히 포드재단의 지원에 힘입은 바 크다. 나도 1980년대 말 3년간 한국학위원으로 봉사했던 미국의 뉴욕에 소재하는 “사회과학연구위원회((Social Science Research Council: SSRC)”는 그러한 연구활동을 계도했던 학술지원기관으로서 포드재단의 역할은 중심적이었다. 미국의 근대화이론은 5,60년대 이들 연구를 계도했던 이념, 발전을 바라보았던 이론적 틀이었다고 하겠다. 한 측면에서 보면, 특정 지역/국가에 대한 학문발전은 제국주의적 팽창과 높은 상관관계를 갖는다. 제국주의적 중심부국가가 아니고서는 학문발전을 추동할 재정적, 정치권력적, 지적 자원을 제공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2차대대전 영국의 사례가 대표적이고, 그 이전 17,8세기 이래 20세기 전반에 이르는 프랑스, 19세기 후반 독일의 경우도 그러하다. 아시아지역에서 전전 일본에서의 중국학이나 한국학의 발전은 일본의 중국대륙 침탈과 한국식민지경영과 깊은 상관관계를 갖는다. 예컨대 일본의 만주국경영과 만주국의 만주철도 산하의 도서관 자료가 중국, 한반도 연구의 가장 중요한 자료원이라고 할 수 있다. 전후 일본에서 JETRO 산하(그 이전에는 통산성 산하기관)의 “일본아시아경제연구소”가 중심이 되어 이끌어온 동남아 지역연구의 경우도 그러하다. 2차대전 이후 미국의 역할도 그러하며, 근대화이론은 이를 계도했던 이론적 틀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여기에서 학문의 제국주의적 추동력, 그리고 학문발전과 제국주의와의 상관관계를 부정적으로 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서술로서 말하는 것임을 강조하고자 한다. 전후 지역연구, 특정 국가들, 특히 주변부국가들에 대한 연구들과 발전은 미국의 이러한 역할 없이 생각하기 어렵다.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특정 지역, 특정 국가의 학문발전은 반드시 정치적, 경제적 이해관계의 중요성에 비례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지역적 중요성과 상당 정도 상관관계를 갖는다. <다음호에 계속> ■